



복사열로 이글거리는 활주로 연일 불뿔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7일 이글거리는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복사열로 항공기 탑승객들이 흐트하게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 구성 후 첫 임시회

11~18일 상임위별 업무보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정·교육청 담당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40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개 상임위별로 주요업무보고받고,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 현안 및 사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도의회-집행부간에 서로 공유 및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 1건, 도지사 제출 의안 32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을 포함한 총 34건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게 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제차례 회의를 열고 2022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해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현장과 서귀포시 강정동 공동주택 건설 예정지 등을 방문한다. 이와함께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농수축경제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나머지 상임위도 현안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현 분양가 절반 공공분양주택 추진

도, 3000호 공급 검토... 국공유지에 건설 예정 1조원 이상 재원 조달이 사업 성공 여부 가를 듯 LH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개발공사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 등에게 건설 원가로 제공하는 '제주형 공공분양주택' 3000호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막대한 재원조달이 사업 성공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무주택 청년 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오영훈 제주지사 임기 내 건설원가에 분양하는 '제주형 공공분양주택' 3000호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와 이차비용, 택지조성원가를 더한 금액이다. 제주형 공공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토지 임대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설원가에 택지조성원가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도내 일반 분양형공공주택에 비해 50% 이상 낮은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50만호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원가주택보다 저렴하다.

청년원가주택은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들이는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이다.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 매매를 원하면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매매차익의 30%를 공공으로 돌아가는 환매조건부이다. 시세차익의 나머지 70%는 분양받은 사람이 갖게 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

이에 반해 제주도가 추진할 예정인 제주형 공공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매입하는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분양가 20%를 선납하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주택매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즉 분양가가 3억원인 경우 6000만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현재 토비매입비를 제외한 공공주택 1호당 건축비는 2억~3억원 정도이다. 공공분양주택 3000호 건설을 위해서는 최소 7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하면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형 공공분양주택' 건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제주도개발공사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부지는 제주시 구도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공공분양주택 3000호와 공공임대주택 4000호 건설을 제시했다"면서 "9~10월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원송이두창 자체 진단체계 구축한다

도보건환경연구원, 진단기술 이전 위한 준비 완료

제주에서도 법정 감염병인 원송이두창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체계가 구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해의에서 확산 중인 원송이두창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자체 신속 확인 진단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송이두창과 관련한 질병관리청의 교육을 수료하고 숙련도 평가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진단기술 이전 최종 통보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송이두창의 도내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신속 검사를 진행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에볼라바이러스 등 법정 감염병 총 77종을 자체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

현근택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제주의 경우 질병관리청에 확인

검사 의뢰 시 결과가 나오기까지 3~4일이 소요된다"며 "이번에 확인 검사 확대 조치를 통해 진단검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원송이두창 유행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이전 준비상황을 고려해 교육 이수과 숙련도 평가 등 적합성을 검토한 후 법정감염병 확인진단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그간 질병관리청이 확인진단 기술을 이관한 법정감염병은 2019년 65종, 2020년 72종, 2021년 73종, 2022년 77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서울·부산·광주·강원·제주 등 5개 권역에만 에볼라바이러스 등 4종, 올해는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등 2종의 확인검사 기술이 이전돼 지역사회 고위험병원체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강다혜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315
잠정 집계 7일 누적 24만1241
<17시 기준>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도민을 위한 도민의 금융기관
MG 한라새마을금고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하고
믿음과 신뢰의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영업개시일 | 2022년 7월 11일(월)

정기예금 특판
1년 최대 3.5%

MG 한라새마을금고 Tel. 064-721-4212 / 064-722-4212